

2026년도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결과

- 23일 35개 노선 운수권 배분… 최근 수요가 높은 중국·동유럽 노선 등
- 다양한 지방공항 노선 확대로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유입도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4월 23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(「운수권 배분 규칙」 근거) 3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였다.

□ 이번 배분은 최근 한-중 간 여객수요 확대*에 발맞춰 양국 간 국제노선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, 이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함께 외국인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.

* 1분기 한-중 여객실적은 약 439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 회복

○ 부산, 청주 등 지방공항에도 다양한 국제노선 운수권이 배분되어, 지역민의 이동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유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- 베이징·상하이 외에도 항저우·청두·광저우 등 대도시 직항도 신설될 예정이고, 중단됐던 양양공항 국제노선의 재개도 기대된다.

* 부산-광저우(주4)·항저우(주4)·샤먼(주3)·구이린(주4) / 대구-상하이(주7)
청주-베이징(주4)·항저우(주3)·청두(주3)·샤먼(주2)·황산(주2) / 양양-상하이(주3) 등

○ 인천공항에서는 충칭·선전 등 주요 노선은 추가 운수권 배분을 통해 운항편을 증대하고,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닝보·우시 등 도시에도 노선을 신설하여 양국 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.

- 특히, 그간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(FSC) 중심이던 운수권을 저비용 항공사(LCC) 등 신규 운항사에도 확대 배분함으로써 경쟁을 촉진*하고, 소비자의 항공 이용 선택권을 확대한다.

* (기존 노선 증편) 인천-충칭(주7→11회)·선전(주14→18)·청두(주7→11)·샤먼(주7→11)
(신규 노선 개설) 인천-닝보(주6)·우시(주3)·이창(주3)·후허하오터(주2)

□ 올해 신규 확보한 헝가리, 오스트리아 운수권*도 배분한다. 이를 통해, 동유럽 노선 운항이 확대되고, 항공사 선택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.

* (헝가리) '14년 이래 12년간 최대 주6회로 제한, 주14회(아시아나 주3, 티웨이 주5)로 증대 예정

** (오스트리아) '96년 이래 30년간 최대 주4회로 제한, 주7회(대한항공 주3)로 증대 예정

○ 그 외 마나도(인도네시아), 타슈켄트(우즈벡), 뉴질랜드, 카트만두(네팔) 등에서도 항공사들이 운수권을 받아가면서 노선 신설·증편이 추진된다.

□ 국토부는 우리 국민의 항공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항공 노선 개발을 위하여 여행업계, 산업계, 한국관광공사, 인천·한국공항공사 등 민관 협의체를 운영('25.8~)하며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여 왔다.

○ 또한, 지방공항 활성화와 수요맞춤형 공급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국가와 항공회담을 해 온 결과, 실제 지방노선 개설 등 성과*도 나타나고 있다.

* 부산발 발리(인도네시아, '24), 타슈켄트(우즈벡, '25), 알마티(카자흐스탄, '26) 등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운수권 결과에 따라 항공사들의 원활한 취항을 지원하고,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노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	차상헌 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	최연준 (044-201-4211)
			주무관	박초롱 (044-201-4210)

붙임

노선별 운수권 배분결과

순 번	노선	배분받은 항공사
1	인천/타슈켄트	에어프레미아 주4회
2	한국/독일	대한항공 주3회, 아시아나 주2회
3	한국/호주	티웨이항공 주730석, 대한항공 주325석, 아시아나 주308석
4	한국/헝가리	티웨이항공 주5회, 아시아나 주3회
5	부산/상하이	이스타항공 주5회, 제주항공 주3회
6	청주/상하이	에어로케이 주3회, 이스타항공 주2회
7	대구/상하이	이스타항공 주4회, 제주항공 주3회
8	대구/장자제	이스타항공 주2회
9	인천/선전	파라타항공 주4회
10	인천/샤먼	이스타항공 주4회
11	인천/청두	파라타항공 주4회
12	인천/충칭	파라타항공 주4회
13	인천/우시	대한항공 주3회
14	인천/이창	진에어 주3회
15	인천/후허하오터	이스타항공 주2회
16	인천/닝보	아시아나 주3회, 에어프레미아 주3회
17	부산/샤먼	이스타항공 주3회
18	부산/항저우	이스타항공 주4회
19	부산/구이린	제주항공 주4회
20	부산/광저우	에어부산 주4회
21	청주/샤먼	이스타항공 주2회
22	청주/청두	에어로케이 주3회
23	제주/청두	제주항공 주2회
24	제주/충칭	제주항공 주3회
25	부산/베이징	대한항공 주1회, 이스타항공 주7회
26	청주/베이징	에어로케이 주4회
27	양양/상하이	파라타항공 주3회
28	청주/항저우	에어로케이 주3회
29	청주/황산	이스타항공 주2회
30	인천/마나도	이스타항공 주7회
31	한국/마닐라(인천-마닐라)	대한항공 주2,600석, 이스타항공 주1,330석, 파라타항공 주2,058석
32	서울/뉴델리.첸나이.벵갈로(2노선)	대한항공 주1회
33	서울/카트만두	에어프레미아 주2회
34	한국/뉴질랜드	대한항공 주3회
35	한국/오스트리아	대한항공 주3회